

格非 小說 研究

- <迷舟>와 <雨季의感覺>을 중심으로 -

金 榮 哲*

<目 次>

- | | |
|----------------------------|-------------------------------|
| I. 序 論 | 2. <雨季의感覺> 分析: 理性的
限界와 遊戲性 |
| II. 格非 小說 分析 | III. 結 論 |
| 1. <迷舟> 分析: 歷史 解體와
'記憶' | |

I. 序 論

1980년대 중반 중국 문단에 출현한 先鋒派 소설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주제가 없고, 역사의 진실이나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며, 현실 반영을 포기하고 서술상의 유희를 실험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며,¹⁾ 그러한 시도는 서사혁명·언어실험·생존상대라는 세 층위에서 진행되었다고 평가된다.

물론 같은 先鋒派 라고 해도 작가들은 제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며 다양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先鋒派의 대표작가인 馬原是 元敘事 수법으로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물기도 하고, 작은 에피소드를 斷續적으로 배치해 경험의 단편성과 삶의 무한한 未知 현상을 제시하는 데 비해, 이 글에서 다룰 格非²⁾는 작품 속에서 주요 인물의 내재 의식으로 미로(迷宮)

* 東國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1) 朱棟霖·丁帆·朱曉進 主編, 《中國現代文學史》, 高等教育出版社, 1999, 133쪽.

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³⁾

이렇게 格非의 서술이 미로(迷宮)⁴⁾가 되는 것은 “현실은 추상적이고, 선형적이다. 따라서 역시 텅 빈 것(空洞)이다.”⁵⁾라는 그의 현실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작<靑黃>(1988)에서 각기 다른 기록들과 인물들은 ‘靑黃’의 의미에 대해 다르게 진술하고, 화자도 ‘靑黃’의 의미를 확정하지 않는데, 이는 그의 독특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1980년대 후기부터 1990년대까지 格非의 소설은 미로식의 서사 형식을 구축하면서 존재의 부조리와 우연, 진실에 대한 회의, 운명의 불가예측성 등을 다루고 있다.⁶⁾

주로 중단편이 대부분 이었던 이 시기 작품들은 <追憶烏攸先生>(1986) <迷舟>(1987) <大年>(1988) <褐色鳥群>(1988) <靑黃>(1988) <雨季的感覺>(1991) 등 39편에 달한다.⁷⁾ 2000년 이후 발표하는 장편소설에선 역사

2) 작가 자신의 진술에 의하면, 格非란 필명은 格物致知와 是是非非에서 한 글자씩 빌려와 格非란 필명을 썼다고 한다. 그의 본명은 仇勇이다.

3) 陳思和 主編, 《中國當代文學史教程》, 復旦大學出版社, 2002, 291-292頁.

4) 중국에서는 미로보다는 미궁이라는 어휘를 많이 사용해서, 한국어 미로 뒤에 괄호 안에는 迷宮이라 표기했다.

5) 格非, 《邊緣》自序, 陳思和 主編, 앞의 책 재인용.

6) 郭大章, <格非小說的主題探討>, 《安徽文學》12, 2007, 38頁.

7) 格非 1986年~1999年 中短篇小說 篇目: <追憶烏攸先生>(1986), 《中國》。<風琴>(1987), 《人民文學》。<迷舟>(1987), 《收穫》。<陷阱>(1987)《關東文學》。<大年>(1988), 《上海文學》。<褐色鳥群>(1988), 《鍾山》。<沒有人看見草生長>(1988), 《關東文學》。<靑黃>(1988), 《收穫》。<背景>(1989), 《收穫》。<傻瓜的詩篇>(1989), 《鍾山》。<夜郎之行>(1989), 《鍾山》。<蚌殼>(1990), 《北京文學》。<呼哨>(1990), 《時代文藝》。<錦瑟>(1990), 《花城》。<雨季的感覺>(1991), 《鍾山》。<黎明之軌>(1991), 《時代》。<鑲嵌>(1992), 《花城》。<去罕達之路>(1993), 《佛山文藝》。<相遇>(1994), 《大家》。<湮滅>(1994), 《收穫》。<贗品>(1994), 《收穫》。<涼州詞>(1994), 《收穫》。<紫竹院的約會>(1994), 《鍾山》。<公案>(1994), 《鍾山》。<推背圖>(武則天)(1994)《江南》。<解決>(1994), 《小說家》。<初戀>(1995), 《花城》。<廢墟儀式>(1994), 《作家》。<沉默>(1995), 《天涯》。<謎語>(1995), 《作家》。<打秋千>(1995), 《收穫》。<半夜雞叫>(1996), 《青年文學》。<時間的煉金術>(1996), 《鍾山》。<窗前>(1996), 《作家》。<失蹤>(1996), 《文藝春秋》日

의 거대 담론 특히 이상사회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예를 들면, <人面桃花>(2004)에서는 민국(民國) 초 지식인들의 정신세계와 사회 이상을 탐색했고, <山河入夢>(2007)에서는 1950~60년대 지식인들의 몽상과 사회 실천을 그렸고, <春盡江南>(2011)은 현재 중국의 정신 현실을 다루고 있다.⁸⁾

格非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작품의 형식적인 특징을 분석한 연구⁹⁾, 신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¹⁰⁾, 남미의 작가 보르헤스의 작품과 비교한 연구¹¹⁾, 廢名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연구¹²⁾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참고하면서 格非의 대표작 <迷舟>(1987)와 <雨季的感覺>(1991)의 작품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格非 소설의 특징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先鋒派와 新歷史主義 이론이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추적하고자 한다. 이 글이 이 두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이 작품들이 당시 格非 작품의

本. <喜悅無限>(1996), 《人民文學》. <未來>(1996), 《山花》. <蘇醒>(1998), 《長城》. <馬玉蘭的生日禮物>(1999), 《作家》.

- 8) 雷勝學, <烏托邦的修辭幻象—格非小說論>, 《安慶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30:1, 2011, 11쪽.
- 9) 劉冰, <自我的裂變與記憶—論格非小說中的時間意識>, 《現代語文(文學研究)》 10, 2010. 李潔, <時空碎中重構的個人體驗—格非中短篇小說敘事特點初探>, 《梧州學院學報》 17:5, 2007. 杜芸, <<迷舟>: “怎麼寫”的生動文本>, 《貴州師範大學學報》 113, 2001. 楊小濱, 愚人譯, <不確定的歷史與記憶: 論格非早期中短篇小說>, 《當代作家評論》 2, 2012. 등이 있다.
- 10) 국내 연구 성과로는 박정원, <“신역사주의 이론”의 유입과 “신 역사 소설”의 발생>, 《중국학연구》 22, 2002, 1-20쪽. 중국 연구 성과로는 王瑋瓊, <新歷史小說的拼貼敘事技巧>, 《群文天地》 02, 2012. 劉川鄂, <新歷史主義小說的解構及其限度>, 《文藝研究》 7, 2007. 王巖川, <新歷史主義的文化詩學>, 《北京大學學報》 3, 1997. 등이 있다.
- 11) 張瑩瑩, <論格非小說<迷舟>的敘事特點—<交叉小徑的花園>與<迷舟>敘事比較研究>, 《文學理論》 34, 2010.
- 12) 劉勇(格非의 본명), <廢名的意義>, 《文藝理論研究》 1, 2001. <廢名的魅力>, 《文藝理論研究》 4, 2001, <廢名小說的時間與空間>, 《當代作家評論》 02, 2001. 格非 選編, 《廢名小說》, 浙江文藝出版社, 2007.

주요 특징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¹³⁾

II. 格非 小說 分析

1949년부터 1966년 文化大革命 발발 이전 17년 동안 등장한 혁명 역사 제재 소설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의 영도아래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 혁명의 진행 및 건설을 반영하는 소설들이다.¹⁴⁾ 이 작품들은 주로 중국 정부의 역사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역사를 사회주의라는 진리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보고, 중국 공산당의 이념에 근거해 주류 역사의 총체성을 파악하는데 무게를 둔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중국 문학사에 등장한 새로운 역사 제재 소설 유형¹⁵⁾은 그 이전 시대의 역사 소설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신 역사주의 소설 혹은 신 역사소설 등으로 명명되는 이 소설들은 중심의 권위를 해체하는 해체주의 시각에서, 중심 역사가 아니라 주변부 역사를 서술하며, 역사의 필연성과 객관성을 부정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유동적인 텍스트로 역사를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박정원은 이와 같은 신 역사 소설의 특징을 소수 담론의 강조, 역사의 객관 진실성 부정, 역사 서사의 확장으로 해석했다.¹⁶⁾

13) 주6) 참조.

14) 王哲, <十七年革命歷史題材小說創作繁盛探因>, 《南都學壇》30:2, 2010, 참조.

15) 박정원은 이러한 소설 유형을 신역사주의 소설, 신 역사 소설, 신 역사 제재 소설 등으로 학자마다 달리 명명하는데, 서양의 신역사주의 이론과의 영향관계를 중시하면 신역사주의 소설, 중국내 역사 소설의 자연 진화 관점으로 보면 신 역사 소설이라고 명명하는데, 신역사주의 이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중국내 문학 내재적 발전이라는 측면도 고려하여 신 역사 소설이란 명칭으로 정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格非 소설은 서양의 신역사주의 이론 뿐 아니라 廢名 소설, 중국 고전 문학 등 다양한 방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格非 소설도 신 역사 소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박정원, 앞의 논문.

16) 같은 논문, 6-10쪽.

格非의 <迷舟>도 이러한 신 역사 소설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格非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박진감 있는 문체가 성공적으로 나타난 그의 대표작이다.

1. <迷舟> 分析: 歷史 解體와 ‘記憶’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중국현대사의 중요 사건인 北伐戰爭 기간인 1928년이고, 주인공은 孫傳芳 軍벌군의 여단장 蕭이다. 사건은 그가 전투 준비를 위해 요충지인 小河를 사전 조사하는 중 과거의 연인 杏을 만나 애정 행각을 벌이다, 적에게 기밀을 누설했다고 오해 받아 자기의 경호원에 의해 사살된다는 내용이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이 소설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작품의 첫 머리에 역사 기록처럼 객관적인 필치로 서술하고 있다.

1928년 3월 21일, 北伐軍 선두 부대가 돌연 蘭江 양안에 나타났다. 孫傳芳 수비군인 31사단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다. 北伐軍은 蘭江 과 漣水 가 만나는 중급 鎭인 榆關을 신속히 장악했다. 孫傳芳은 臨口에 많은 부대를 집결하는 동시에, 정예 사단을 선발 배치해 漣水 아래에 위치한 棋山요새를 지키도록 했다. 棋山 수비군 소속 32여단 여 단장 蕭는 어느 날 심야에 棋山의 대안에 위치한 小河에 잠입했다. 7일 뒤 갑자기 실종돼 찾을 수 없었다. 蕭 여단장의 실종은 수 일 뒤 장마철에 시작된 전투에 신비한 그림자를 드리웠다.¹⁷⁾

중국 현대사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1928년 봄 孫傳芳은 張作霖에 의해 山東省 서쪽 전선(魯西前線)의 총지휘관으로 임명받아 蔣介石와 馮玉祥과

17) “一九二八年三月二十一日, 北伐軍先頭部隊突然出現在蘭江兩岸。孫傳芳部守軍 31師不戰而降。北伐軍迅速控制了蘭江和漣水交接處的重鎭榆關。孫傳芳在臨口大量集結部隊的同時, 抽調精銳之師駐守漣水下遊棋山要塞。棋山守軍所屬32旅旅長蕭在一天深夜潛入棋山對岸的村落小河, 七天後突然下落不明。蕭旅長的失蹤使數天後在雨季開始的戰役蒙上了一層神秘的陰影。” 格非, <迷舟>, 《戒指花》, 春風文藝出版社, 2007, 9頁. 출역, 《강디스 산맥의 유혹》, 나남, 2011, 11쪽.

전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榆關¹⁸⁾이란 鎮도 山東省에 존재한다. 작가는 작품 속에 작전 지도까지 그려 놓으며 독자에게 이 소설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다음, 蕭 여단장의 실종 스토리를 순차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설의 구조와 수법은 아르헨티나 작가 보르헤스의 소설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 交叉小徑的花園>과 매우 흡사하다.

리텔 하트가 쓴 <유럽 전쟁사> 242페이지를 보면 1916년 7월 24일 영국군 13개 사단이(1400문의 대포 지원 하에) 세르-몽뜨반 전선을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9일 아침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적혀있다. 리텔 하트 대위는 공격 연기가 폭우 때문이었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적고 있다. 칭따오 대학의 영문학 노교수였던 유춘 박사가 구술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한 아래의 진술은 그 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처음 두 페이지는 소실되고 없다.¹⁹⁾

이 글에 언급된 리텔 하트라는 영국의 전쟁사가(戰爭史家)는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고, 《유럽 전쟁사》(1934년 개정판)란 역사서도 있으며, 날자는 다르나 영국군 제 13사단이 공격하기로 예정했다가 연기되었다는 기록도 있다.²⁰⁾ 이 소설은 영국군이 프랑스의 세르-몽뜨반 전선에 대한 공격을 늦추게 된 이유를 추리 소설 수법으로 밝히고 있다.

格非는 자신의 문학이론서에서 위의 부분을 예문으로 제시하면서, 허구 인물인 유춘 박사와 실재 인물인 리텔 하트 대위를 섞어 놓아 허구를 실재한 것으로 꾸미면서, 허구와 역사 문헌의 경계를 허물려고 시도하고 있

18) 구글 지도에 의하면 榆關은 소설과는 달리 강변에 위치하지 않으며, 멀리에 戴河라는 강이 흐른다.

19) 보르헤스, 황병하 옮김, 《보르헤스전집2 픽션들》, 민음사, 2005, 145-146쪽.

20) 같은 책, 146쪽. “역사서에는 6월 29일에 공격하기로 되어있으나 7월 1일로 연기되었는데 폭우로 연기되었다는 언급은 없다.”라고 조사되고 있다.

다고 지적했다.²¹⁾ 실제 역사 기록을 첫 머리에 두고, 본문에서는 그 역사 기록의 절대성과 객관성을 해체하는 보르헤스의 이 소설의 구성과 수법은 <迷舟>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格非는 보르헤스와 다른 해체 방법을 사용한다.

보르헤스는 다양한 계열의 여러 시간들이 동시적으로 공존하며, 현재의 순간도 상이한 차원에서 반복 가능하다고 보는 시간관으로, 삼차원적 시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적 사건의 인과적 연속성의 절대성을 해체한다.²²⁾ 이에 비해 <迷舟>에서 格非는 개인의 ‘기억’으로 기억되는 역사라는 관점으로 기존 역사 소설의 인과적 연속성에서 벗어나며, ‘운명’ ‘우연’ ‘오해’ 등으로 기존 역사 기록의 필연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는 먼저 주인공 蕭가 小河에 잠입해 사살되는 과정을 기존 역사 기록처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들어가기

- ① 蕭가 小河 마을에 잠입해 주둔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라는 사령부의 비밀 지령을 받다.
- ② 馬三 이준마가 찾아와 부친의 사망을 알린다.

1일

- ③ 蕭가 경호원과 함께 군사적 목적으로 小河 마을에 잠입한다.

21) “作者將一個虛構的名字俞琛與一個真實的名字德爾·哈特並置，試圖造成故事實有其事的假象，從而部分地消除掉虛構與歷史文獻的界限。” 格非，〈文學的邀約〉，清華大學出版社，2010，98쪽. 그리고 <迷舟>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蕭가 경호원에 의해 총으로 사살되고, 보르헤스의 소설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 交叉小徑的花園>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알버트가 유준에게 사살되는 것은 매우 흡사한 결말이며, 그 살해 동기도 “미로 시간”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22) 김재희, <보르헤스 작품에 나타난 시간의 철학적 의미>, 《철학연구》 74, 2003, 46쪽. 보르헤스의 다른 작품 <타자>의 경우, 영국의 어느 공원의 벤치에서 나는 과거의 나와 만난다. 그들은 동일인이지만 ‘타자’로 만난다. 게다가 나는 미래의 동전을 갖고 있다. 황병하, <타자>, 《보르헤스 전집》 5, 민음사, 2004, 9-21쪽.

④ 蕭는 부친의 영안실 참배하다. 늙은 도사가 죽음을 예언한다.

2일

⑤ 蕭는 부친의 장례식에 참여한다. 사촌 여동생 杏²³⁾과 재회하다. 외삼촌 집에서 의학을 배울 때를 기억한다.

3일

⑥ 蕭는 杏과 밀회를 갖다. 馬三 이줌마는 杏의 남편의 출타 소식을 전한다.

4일

⑦ 蕭가 杏의 집에 가서 다시 밀회를 갖는다.

5일

⑧ 蕭와 杏의 애정 행각이 杏의 남편 三順에게 발각된다. 三順에게 폭행당한 杏은 친정집이 있는 榆關으로 보내진다.

6일

⑨ 三順이 蕭를 붙잡으나 뜻밖에 죽이지 않고 보내준다.

⑩ 蕭는 杏을 보러 榆關에 간다.

7일(마지막 날)

⑪ 경호원이 밀령에 따라 榆關에 갖다 온 蕭를 사살한다.

위에서 보듯이 이 소설의 사건은 기존 역사 기록처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日字를 적어 ‘시간’의 繼起性을 강조하

23) 杏은 살구란 뜻이지만 발음이 性과 같아 섹스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며, 욕망의 기호로 존재하며 환상의 산물로 보기도 한다. 張旭東, 같은 책, 286쪽. 이 杏이란 이름은 그의 처녀작 <우여우 선생을 회상하다 追憶烏攸先生>에서는 杏子라고 등장한 바 있다. 이 소설에서 그녀는 강간당할 때 질식돼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며, 烏攸先生은 그 범인으로 몰려 처형된다. “杏子被強姦時窒息而死,” 格非, <戒指花>, 《追憶烏攸先生》, 앞의 책, 6쪽.

고 있다. 그 ‘시간’은 주인공 蕭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 사건들의 진행은 중간 중간에 개인의 ‘기억’이 삽입되면서 방해받는다. 蕭는 ①에서 북벌 혁명이라는 역사(시대)의 한 단락에서 그 역할과 사명을 부여 받는다. 그러나 ②부터 馬三 아주머니를 매개로 私的인 기억 속으로 빠져 들고, 그 영향은 ⑩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마지막 ⑪에 가서 다시 역사의 시간으로 돌아온다.

‘역사’(시대)가 일기와 같이 자연 시간 순으로 진행되며 표층적인 시간을 지배하는 것에 반해, ‘개인’(주인공 蕭)의 ‘기억’은 단절되고 분산되며 다른 궤도의 시간대를 형성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들어가기: 형의 입대와 蕭 자신의 입대 상황을 기억하다.(3)

2일: 외삼촌 집, 어느 여름날 촌과 만나다.(4).

2일: 외삼촌 집, 낮잠 자는 촌과 육체적 접촉을 하다.(5)

2일: 촌의 결혼 내역을 듣다.(6)

3일: 馬三 아주머니의 내력을 듣다.(1)

3일: 어린 시절, 어머니의 馬三 아주머니 집 방문을 회상하다.(2)

6일: 형에게 보낸 부친의 편지를 보다.(7)

과거에 대한 蕭의 “기억”은 3→4→5→6→1→2→7 순으로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다. 처음 3-4-5-6은 현재부터 가까운 순서로 뒤로 돌아가다가, 그 보다 더 과거의 시간인 1-2로 돌아간 뒤, 다시 가장 가까운 과거 시간대로 돌아온다. 즉 표면의 자연시간과 이면의 심리적 시간이라는 두 시간대가 공존하고, 그 심리적 시간(기억)들은 역사적인 시간의 진행에 단속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작품의 머리말(引子)에 서술된 역사적 현실을 개인의 심리적 현실로 변형시키고 있다.²⁴⁾ 개인의 심리적 현실을 통해 이 소설은

24) 格非는 역사에 대해 “세상의 모든 체험은 선택과 억압이란 메커니즘에 의해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남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진다. 기억이란 주관적이고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다. 역사를 집단의 기억이라고 말한다면, 역사도 역시 개인의 기억처럼 선택과 억압이란 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객관적이지

시대적 기록물로서의 기존 역사나 역사 소설과는 다른 차원에서 역사적 진실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인 자끄 데리다와 같이 格非도 역사 서술(혹은 인식)에서 대상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고, 주변적인 대상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오류와 공식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²⁵⁾ 예를 들면, 중국현대사에서 북벌군/군벌, 공산당/국민당에 대해 전자는 승리자이고 진보이고, 후자는 패배자이고 반동(보수적인)적인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고 역사를 공식화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소설 <迷舟>에서 작가는 이러한 기존 역사 인식의 문제점을 언급한다. 주인공 蕭가 중국의 비밀 결사 조직인 小刀會 두목 중의 한 명이었던 부친에게 왜 패배한 부대에 참가했느냐고 묻자 부친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아버지는 아픈 곳을 찢린 것 같았다. 그는 의외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패배하거나 승리한 부대란 본래 없는 것이다. 오로지 늑대와 사냥꾼만 있는 법이다.²⁶⁾

즉 역사의 현장에선 시대정신이나 이념 등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蕭의 부친이 清末에 淸 왕조를 전복하려 했던 무장조직인 小刀會에 참여한 것이나, 蕭가 군벌 군대에 입대해 군벌을 위해 전투하는 것이나, 蕭의 형이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하고 북벌군의 장교로 중국 통일을 위해 군벌과 싸우는 것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늑대와 사냥꾼’처럼 쫓고 쫓기는 관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기존의 중국현대사는 독점적인 지위를 잃게 되고, 보다 열린 시각에서 재해석

않으며 고정 불변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格非, 《文學的邀約》, 앞의 책, 29-33쪽.

25) 같은 책, 44-45쪽. 김상수, <자끄 데리다와 해체>, 《서양사연구》 33, 2005, 124-125쪽.

26) “父親像是被碰到了痛處, 他的回答卻是漫不經心的: 從來就沒有失敗或者勝利的隊伍, 只有狼和獵人.” 格非, <迷舟>, 《戒指花》, 앞의 책, 11-12쪽.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역사 기록의 절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格非는 또 역사적 사실을 인과 관계로만 설명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만약 세상의 모든 일을 인과로 설명할 경우 모든 것을 도식화(程式化)하는 오류를 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²⁷⁾ 그는 ‘우연’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因果’로만 설명하면 세상의 일들을 방정식처럼 고정되고 단순화시켜 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因果’로 설명하지 못할 세상사의 불평등이나 신비를 중국에서는 사주팔자, 인도에서는 前生, 중동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하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우연’이란 용어로 표현한다. 독일의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 오도 마르크바르트는 ‘우연’은 서로 관계가 없는 요소들이 예측할 수 없이 등장해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또 인간에게는 자의적 ‘우연’과 운명적 ‘우연’이 존재한다고 말한다.²⁸⁾

格非가 <迷舟>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우연’은 운명적인 ‘우연’이 대부분이다. <迷舟>서술자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蕭는 馬三 아주머니가 아침에 갑자기 방문해 만든 미혹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다. 그는 馬三 아주머니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오래 숨겨져 있던 의혹을 들추어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또 다른 더욱 심오한 수수께끼를 만든 것 같았다. 그는 馬三 아주머니는 어떻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棋山의 지휘소를 기적처럼 찾아 왔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또 어떻게 그의 마음을 추측할 수 있었을까?²⁹⁾

27) 格非, 《文學的邀約》, 앞의 책, 45쪽.

28) 오도 마르크바르트, <우연성의 변론>, 이진우 역,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 서광사, 2001, 296, 307쪽.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은 이 우연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주인공 토마스가 시골 식당 종업원 테레사를 만나게 된 과정을 회상하면서 6번의 ‘우연’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밀란 쿤데라, 송동준 옮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민음사, 1993, 50, 69쪽.

29) “蕭重新陷入了馬三大嬸早上突然來訪所造成的迷惑中。他覺得馬三大嬸的話揭開

그가 급히 집에 돌아 온 것은 부친의 죽음 때문인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그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마을을 그리워하는 갈망 때문인지 모른다. 뭔가 더욱 심원하고 거대한 힘이 그를 이끄는 것 같았다.³⁰⁾

蕭는 바로 棋山에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가 일어나 부친의 서재를 떠나려는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희미한 생각이 스쳐지나갔고, 그래서 그는 처음 생각을 또 다시 바꾸었다. 그는 杏이 생각났다.³¹⁾

이 소설에서 ‘우연’은 사건의 본질처럼 결정적이다. 蕭가 군 작전상 조사해야 할 곳이 ‘우연히’도 고향 마을이고, 그 때 마침 ‘우연히’ 부친이 사망했으며, 또 적군인 북벌군이 ‘우연히’ 친형의 부대이며, 게다가 ‘우연히’ 蕭 부대와 대치하고 있는 榆關에 주둔하고 있으며, 과거의 연인이었던 杏이 공교롭게 고향 마을로 결혼해 왔고,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蕭의 총을 서랍에 감춰 놓아 경호원의 저격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가 닭을 잡기 위해 대문의 빗장을 걸어 놓아 결국 蕭는 경호원에게서 도망치지 못하고 죽게 된다.

만약 蕭가 군 작전상 조사해야 할 곳이 고향 마을이 아니고 杏이 결혼해서 고향으로 오지 않았다면, 杏과의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蕭가 榆關에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적군인 친형 부대가 榆關에 주둔하고 있지 않았다면 蕭가 군 정보를 전달했다는 오해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가 총을 감추어 놓지 않았다면 경호원에게 총

了他心中隱藏多時的謎團，但它仿佛又成了另外一個更加深邃的謎的謎面。他想像不出馬三大嬸怎麼會奇跡般地出現在鮮為人知的棋山指揮所裏。她又是怎樣猜出了他的心思？另外，杏是否去過那棟孤立的漣水河邊的茅屋？在榆關的那個夏天的一幕又在他的意念深處重新困擾他。” 格非，〈迷舟〉，《戒指花》， 앞의 책， 22쪽.

30) “他不知急於回家是因為父親的死，還是對母親的思念，或者是對記載著他童年的村子憑吊的渴望。他覺得像是有一種更深遠而浩瀚的力量在驅使他。” 같은 책， 15쪽.

31) “他決定立刻趕回棋山。就在他站起身準備離開父親書房的瞬間，他意念深處滑過的一個極其微弱的念頭使他又一次改變了自己的初衷。他想到了杏。” 같은 책， 30쪽.

으로 대항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가 대문의 빗장을 걸어 놓지 않았으면 충분히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연’이 연속하는 현상이 다름 아닌 역사인 것이다. 따라서 ‘인과’와 ‘필연성’ 등으로 서술되는 중국 현대사도 실은 ‘우연’의 연속일 수 있다는 것이 작가 格非의 시각이다.

이런 ‘운명적 우연’성 뿐 아니라 이 소설은 인간 행동의 의외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삼의 남편 三順이 아내의 부정을 알고 꽤거리를 데리고 蕭를 죽이려 하다 갑자기 그를 풀어준 것에 대해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三順은 이미 손에 쥐고 있던 돼지 도살용 칼을 漣水河에 던져 버리고 몸을 돌려가 버렸다. 그는 나무숲으로 들어가기 전 고개를 돌려 그의 부하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를 놓아줘. 아마도 이미 망가진 여인에 대한 蕭의 미련이 그를 감동시켰거나, 그의 내심 깊은 곳에 일어난 알 수 없는 무상한 감정 때문일지도 모른다. 三順은 蕭를 죽이려는 생각을 버렸다. 蕭가 몽롱하게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이미 밤의 장막 속으로 사라졌다.³²⁾

서술자는 三順이 蕭를 죽이지 않은 것은 ‘미련에 감동하거나’ ‘알 수 없는 무상한 감정’ 때문 일지 모른다고 인간의 행동 동기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인간 심리의 예측 불가능성은 이성적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역사 서술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

기존 역사 서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먼저 이성적 논리의 착오와 폭력성이란 측면을 들 수 있다. 평소 게으르고 순종적이었던 경호원이 갑자기 蕭를 사살하는 것은 蕭가 적군인 친형 부대가 주둔한 榆關에 갈 경우 사살하라는 사령부의 밀령

32) “三順已經將手裏的那把殺豬刀扔進了漣水河，轉過身徑自走了。他在進入叢林前又回過頭來朝他手下的幾個人擺擺手：放了他。也許是蕭對於一個已經廢掉的女人的迷戀感染了他，也許是他內心深處莫名其妙的喜怒無常，三順放棄了殺死蕭的想法。當蕭朦朧朧地想到了這一切的時候，那些人已經在夜幕中消失了”格非，〈迷舟〉，《戒指花》， 앞의 책， 30쪽.

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는 蕭가 비밀리에 榆關 갔다는 것은 분명 군사기밀을 누설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성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다. 경호원은 蕭의 해명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蕭에게 총을 발사한다. 독자들은 경호원의 돌변에 놀라면서 그의 이성적 판단이 착오라는 것에 안타까워하게 된다. 동시에 기존 역사도 대부분은 이러한 이성적 논리에 의해 진행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공적인 시간과 사적인 심리적 시간의 충돌로도 볼 수 있다. 역사적 군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공적인 시간이 가족과 연인을 회상하는 사적이며 심리적 시간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현대사의 거대 담론에서 사적인 시간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군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공적 시간은 사적인 시간(杏 방문)을 용납하지 않는다. 즉 중국 현대사의 집단 의식의 과잉 속에 개인의 자리는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과거 시간이 예고도 없이 현재에 돌출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르헤스는 현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며, 인과적 연속성을 탈구(脫臼)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이 수시로 등장한다고 본다. 여기서도 경호원은 蕭를 감시하고 만약 蕭가 榆關에 가면 사살하라는 사령부의 특명을 받는다. 이 과거 사실은 아무런 사전 복선도 없이 갑자기 현재에 등장한다. 그리하여 사건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³³⁾

작가 格非는 이렇게 현실의 역사를 다양한 층위에서 서술하며 이성과 객관성을 자랑하는 기존 역사 서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층위는 주관적이고 유동적이지만 기존 역사에서 배제되거나 포괄하지 못한 매우 풍부한 사유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格非는 또 다른 소설 <雨季的感覺>에서 인간 理性이란 얼마나 취약하며 시간이란 순차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치밀한 구조로

33) 이를 중국학자들은 “생략(空缺)” 구조라고 한다.

증명하고 있다.

2. <雨季的感覺> 分析：理性的 限界와 遊戲性

이 소설의 제목인 ‘장마철의 감각 雨季的感覺’은 ‘雨期’라는 자연 환경과 인간의 감각이라는 특이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목의 의미를 볼 때 이 소설의 내용은 장마철에 인간의 감각에 대한 내용이라고 추론된다. 그리고 머리말(引子)에 제시한 앙드레 지드의 인용문은 이 소설이 ‘흥미’라는 유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³⁴⁾

우리의 삶에 흥미를 갖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당신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양식>

따라서 이 소설의 작가는 ‘비’ ‘감각’ ‘흥미’라는 세 가지 코드³⁵⁾를 통해 작품의 의도를 독자들에게 사전에 제시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먼저 ‘비와 감각’이란 코드로 보면, ‘비’로 인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감각에 이상(異狀)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 ① 鎮長이 밤새 내린 빗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 편두통이 생긴다.
- ② 王 비서가 음악 교사 段小佛의 장난 전화를 믿고 일본군이 梅李 마을을 폭격했다고 보고하다.
- ③ 褚少良이 청첩장 날짜를 잘못 적다.
- ④ 鎮長이 荀侃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하다.
- ⑤ 辨機 스님이 속된 꿈을 꾸다.

34) “你永遠也無法了解，爲了讓自己對生活生興趣，我們付出了多大的努力。－安德烈·紀德 <人間糧食>”，格非，<雨季的感覺>，<<不過是垃圾>>，春風文藝出版社，2007，101頁。

35) 롤랑 바르트가 말하는 “징조 단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위의 예들에서 보듯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장마철이라는 기간에 착오나 실수, 불투명한 이유, 일시적인 충동, 무의식, 잘못된 정보, 장난 등 믿을 수 없으며 비이성적인 행동을 저지른다. 서술자는 ‘비’ 때문에 주요 인물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이상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진(鎭)의 농민들은 자주 집 밖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문지방에 쭈그리고 앉아 넋이 나간 듯 잎담배를 피우며 장마가 끝나길 기다렸다.³⁶⁾

늦은 봄비가 마치 실처럼 계속해 내리자 사람들의 혼이 까마득하게 흠 어지고, 꿈꾸는 것처럼 흐릿해졌다.³⁷⁾

그러나 머리가 텅 빈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 적막하고 기나긴 장마철에는 사람의 기억력에도 곰팡이가 끼는 모양이다.³⁸⁾

여자는 본래 잘 변한다고 하지만 기나긴 장마철에는 그 마음을 더 알 수 없구나.³⁹⁾

보름 동안 계속해서 내린 비로 진의 주민들의 감각에 서로 다른 편차를 발생시킨 날씨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⁴⁰⁾

위의 예들에서 보듯이 장마로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간 듯’ 하고, ‘혼이

36) “鎭上的農民紛紛走到屋外，察看著天色。另一些人則卷縮在門檻邊，沒精打采地吸著旱煙，等待著雨季過去。” 格非，〈雨季的感覺〉，《不過是垃圾》，春風文藝出版社，2007，102頁。

37) “晚春時節的梅雨如絲如織，使人魂飛杳杳，愴然若夢。” 같은 책，107쪽.

38) “可是他的腦子裏一片空白，什麼也想不起來。在這個寂寞而漫長的雨季，人的記性也好像也好像發了黴。” 같은 책，109쪽.

39) “女人生性就善變，碰上了倒黴的陰雨天，她們的心事就更難捉摸了。” 같은 책，111쪽.

40) “持續半個多月的陰雨使鎭上的居民們的感覺發生了不同程度的偏差。” 같은 책，114쪽.

까마득하게 흠어지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며' '기억력에 곱팡이가 끼고' '마음을 알 수 없을 정도로' 異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탐정이 이 마을에 찾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잘못 판단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근거에 의지해 이성적으로 추측하나 모두 오해로 판명된다.

- ① 鎮長은 북쪽에서 온 교장 卜佩의 복잡한 정치적 신분을 떠올리며,
- ② 卜佩의 이웃집 중년 여성은 卜佩 부인과 탐정 사이의 남녀 관계로 보고,
- ③ 약국 경리는 탐정이 일반적인 약재를 사기 위해 이 시골에 올리는 없다며 의혹을 표시하며
- ④ 염색집 주인 아들은 卜佩 선생이 교실에서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고 제보한다.

그러나 그들의 추론은 모두 어이없는 실수에 기인한 잘못된 추론임이 밝혀진다. 그 탐정은 褚少良 친구로 褚少良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왔고, 褚少良이 '비'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 청첩장에 결혼 날짜를 잘못 적어 일찍 온 것으로 밝혀진다. 코미디 같은 이 결말은 인간의 감각이나 이성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입증하며 동시에 이 작품에 지적 '흥미'를 유발한다.

반전(反轉)으로 '흥미'를 이끌기 위해 이 작가는 이 사건의 순서를 교묘하게 뒤바꾼다. 즉 "삶에 흥미를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인용문처럼 이 작품은 '흥미'를 위해 독자들이 눈치 채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장. 鎮長(3)

- ① 鎮長은 비 소리로 잠을 못자 편두통이 생긴다.
- ② 鎮長은 褚少良의 청첩장을 받는다.
- ③ 鎮長은 일본군이 梅李 마을을 폭격했다는 보고를 듣는다.

2장. 卜佩(4)

- ④ 麥泓이 지각하다. 卜佩 태도가 불안정하다.
- ⑤ 卜佩이 귀가 하다.
- ⑥ 卜佩은 탐정이 오전에 집에 왔다는 말을 듣다.

3장. 褚少良(1)

- ⑦ 褚少良은 직접 초청장을 쓰기로 한다.
- ⑧ 褚少良은 우체국에서 체포된다.
- ⑨ 王 비서가 보안사령부에 와서 褚少良을 석방시킨다.

4장. 鎮長(5)

- ⑩ 鎮長은 마을 사람들에게 낯선 방문자에 대한 제보를 받다.
- ⑪ 鎮長은 卜佩 집을 방문한다.
- ⑫ 鎮長은 卜佩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한다.
- ⑬ 鎮長은 卜佩에게 발각된다.

5장. 辨機 스님(6)

- ⑭ 辨機 스님은 숙된 꿈을 꾸다.
- ⑮ 辨機 스님은 30년 수행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느낀다.

6장. 卜佩, 段小佛, 卜佩, 褚少良(2)

- ⑯ 지난 신문에서 일본군 폭격 기사를 보다.
- ⑰ 段小佛, 지명을 바꿔 王 비서에게 통지하다.
- ⑱ 褚少良, 청첩장 초청 일자를 잘못 쓴 것을 발견하다.

만약에 이 작품의 사건들을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3장→6장→1장→2장→4장→5장 순서로 배열했다면 이 작품의 반전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작품은 “흥미”를 느낄 수 없는 무미건조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작가는 고의로 순서를 흐뜨려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순서를 맞추며 지적 유희의 재미를 맛보게 하는 것이다.⁴¹⁾

41) 남미 작가 홀리오 코르타사르는 그의 작품 『돌차기 놀이』의 ‘독서 안내판’에서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장마철이라는 특수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이 마을 유지의 아들인 褚少良의 결혼식 - 탐정의 방문 - 일본군 폭격 기사 등 3가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각 사건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반응과 행위를 그린 것이지만, 실은 이런 시대 배경이나 사건과는 무관한 인간의 감각이나 理性的의 취약성에 대한 寓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結 論

格非 소설에서 서술자는 사실주의 소설처럼 당대 사회 현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⁴²⁾ 그러나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은 理性으로만 세상을 인식하지 않으며,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도 종종 착각으로 판명된다. 결과적으로 그의 소설에서 세상은 인과법칙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시간도 순차적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소설 <迷舟>의 경우, 1920년대 말 중국 북벌혁명을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그 진실이나 본질을 追究하지 않고, 당시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며, 명확한 주제도 제시하지 않는다. 格非는 소재 자체에 절대성을 부여하려 하지 않으며, 경험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하려 하지 않는다. 이 소설에서 역사적 사건은 필연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는 개인의 '기억'이라는 관점으로 기존 역사 소설의 인과적 연속성에서 벗어나며, 운명·우연·오해 등으로 전개되는 사건들을 통해, 기존 역사 기록의 절대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先鋒派的인 특징은 역사의 객관적 진실성을 부정하고, 소수 담론을 다루며, 역사에 대한 敘事 범위를 확장하는

이 작품은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차례로 읽을 수도 있고, 작가가 지시하는 대로 다른 순서로 읽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코르타사르는 앞의 독서방법을 '수동적 독서'라고 말하고 뒤의 독서를 '적극적 독서'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의 상이한 독서방식에 따라 작품의 내용과 구조가 바뀐다. 송병선, <미술적 리얼리즘: 라틴 아메리카 현대소설의 미학>, 아트앤스터디 강좌 교안, 3쪽.

42) 조한경, 《사실주의》,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89쪽.

新 역사소설의 특징과도 직접적으로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소설 <雨季的感覺> 역시 명확한 주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중일전쟁 시기의 진상을 밝히거나 당시 현실을 반영하지도 않는다. 작가는 인간의 理性이란 장마철과 같은 자연 환경에서도 영향 받을 수 있는 취약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또한 사건의 순서를 도치시켜 이야기를 반전하는 서술상의 유희도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先鋒派적 요소 역시 역사의 객관적인 진실성을 부정하는 신 역사소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거대 담론도 아니며 舊 역사소설에서 다루는 역사의 협소한 서사 범위를 넘는 것이다.

格非는 理性과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는 삶의 영역 이외에 또 하나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그는 개인의 '기억'으로 존재하는 그 영역은 부정확하고 모호하나, '비현실적'인 영역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고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세상의 현상을 단순한 오성적 개념만으로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세상에 접근할 수 있고, 세상을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당시(文革과 文革 직후) 중국의 정신적 위기가 사회주의 이념만을 세계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환기하면서, 동시에 근대적 이성에 회의를 제기하는 서구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와도 합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參考文獻>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엮음, 《100년의 문학용어 사전》, 도서출판아시아, 2008.
- 조한경, 《사실주의》,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 보르헤스, 황병하 옮김, 《보르헤스전집2 픽션들》, 민음사, 2005.

- _____, 《보르헤스전집5 셰익스피어의 기억》, 민음사, 2005.
- 줄역, 《깡디스 산맥의 유혹》, 나남, 2011.
- 박정원, <“신역사주의 이론”의 유입과 “신 역사 소설”의 발생>, 《중국학 연구》 22, 2002.
- 김재희, <보르헤스 작품에 나타난 시간의 철학적 의미>, 《철학연구》 74, 2003.
- 김상수, <자끄 테리다와 해체>, 《서양사연구》 33, 2005.
- 오도 마르크바르트, <우연성의 변론>, 이진우 엮음,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 서광사, 2001.
- 장윤선, <馬原의 새로운 글쓰기>, 《中國語文學誌》 11, 중국어학회, 2002.
- _____, <先鋒小說에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 《人文論叢》 22,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 _____, <把文學回復到文學本身>, 《中國現代文學》 20, 한국중국현대문학회, 2001.
- _____, <중국 당대 소설에서 나타나는 보르헤스의 영향>, 《中國語文學誌》, 중국어문학회, 2003.
- 拙稿, <중국 포스트모더니즘 소설 연구>, 《中國語文論叢》29, 中國語文研究會, 2005.
- _____, <<岡底斯的誘惑>의 서사 구조>, 《中國語文學》 58, 영남중국어문학회, 2011.
- 陳思和 主編, 《中國當代文學史教程》, 復旦大學出版社, 2002.
- 朱棟霖, 丁帆, 朱曉進 主編, 《中國現代文學史》, 高等教育出版社, 1999.
- 格非 選編, 《廢名小說》, 浙江文藝出版社, 2007.
- _____, 《戒指花》, 春風文藝出版社, 2007.
- _____, 《文學的邀約》, 清華大學出版社, 2010.
- _____, 《不過是垃圾》, 春風文藝出版社, 2007.

- 雷勝學, <烏托邦的修辭幻象—格非小說論>, 《安慶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30:1, 2011.
- 郭大章, <格非小說的主題探討>, 《安徽文學》12, 2007.
- 劉勇(格非의 본명), <廢名的意義>, 《文藝理論研究》01, 2001.
- _____, <廢名的魅力>, 《文藝理論研究》 04, 2001.
- _____, <廢名小說的時間與空間>, 《當代作家評論》 02, 2001.
- 王哲, <十七年革命歷史題材小說創作繁盛探因>, 《南都學壇(人文社會科學學報)》 30: 2, 2010.
- 劉冰, <自我的裂變與記憶—論格非小說中的時間意識>, 《現代語文(文學研究)》10, 2010.
- 張閔, <時間煉金術—格非小說的幾個主題>, 《當代作家評論》05, 1997.
- 王幹, <爲了歷史而放逐文本—評格非的<相遇>>, 《大家》01, 1994.
- 夏雨, <塞壬的歌聲—論格非作品對於生存困境的提示>, 《現當代作家作品研究》 3, 2010.
- 李清雲, <迷霧中的恐懼—重讀格非的<敵人>>, 《隴東學院學報》 22:1, 2111.
- 孟繁華, 唐偉, <面對百年中國的精神難題—評格非的長篇三部曲>, 《南方文壇》02, 2012.
- 程德培, <進步的世界是一個反諷的世界—讀格非的長篇小說<春盡江南>及其他>, 《當代作家評論》 02, 2012.
- 李潔, <時空碎片中重構的個人體驗—格非中短篇小說敘事特點初探>, 《梧州學院學報》 17: 5, 2007.
- 杜芸, <<迷舟>: “怎麼寫”的生動文本>, 《貴州師範大學學報》 113, 2001.
- 張瑩瑩, <論格非小說<迷舟>的敘事特點—<交叉小徑的花園>與<迷舟>敘事比較研究>, 《文學理論》34, 2010.
- 閻奇男, <論<迷舟>的藝術魅力>, 《山東社會科學》 54, 1996.
- 楊小濱, 愚人譯, <不確定的歷史與記憶: 論格非早期中短篇小說>, 《當代作家評論》 02, 2012.
- 王風玲, <真實的追尋—析先鋒小說的真實觀>, 《新鄉教育學院學報》 18:1,

2005.

- 彭基博, <先鋒小說的感知形式>, 《當代作家評論》05, 1994.
- 張清華, <死亡之象與迷幻之境—先鋒小說中的存在、死亡主題研究>, 《小說評論》01, 1999.
- 陳連錦, <新歷史主義小說誕生的內外語境>, 《寶雞文理學院學報》 31:5, 2011.
- 無躍連, <歷史現實與敘述話語的錯落—格非小說的一種傾向>, 《晉東南師專學報》 1, 2000.
- 張清華, <解構主義與當代中國小說>, 《齊魯學刊》 173, 2003.
- 王瑋瓊, <新歷史小說的拼貼敘事技巧>, 《群文天地》02, 2012.
- 劉川鄂, <新歷史主義小說的解構及其限度>, 《文藝研究》 07, 2007.
- 王嶽川, <新歷史主義的文化詩學>, 《北京大學學報》03, 1997.
- 華蓉, <析格非<人面桃花>中的新歷史主義特色>, 《語文學刊》02, 2012.
- 陳嬌華, <論中國當代文學對新歷史主義的接受與變異>, 《理論與創作》 136, 2010.
- 李清, <振擺—新歷史主義本文闡釋模式>, 《成都大學學報(社會科學版)》 01, 1998.
- 邵明, <新歷史主義小說的社會歷史觀>, 《安慶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03, 2000.
- 張麗娟, <歷史敘事——先鋒文學中蘊涵著新歷史主義的神韻與精神>, 《安徽文學(下半月)》 06, 2009.

<中文提要>

在格非小說里, 作者像寫實主義小說那樣對當代社會的現實做了客觀描述。然而小說中的人物卻沒以理性來認識客觀世界, 他們所作出的理性的判斷往往是錯誤的。因此小說所刻畫的世界不是因果法則所能解釋的, 也不是

完全按时间顺序进行的。

小说<迷舟>以1920年中国北伐革命为背景，不刻意追求真实、本质的东西，或是反映现实，也没有明确的主题。格非不刻意强调内容或是对客观现实重新进行架构，小说里所发生的事件也并非必然是要发生的。作者不是像传统小说那样在因果脉络中进行叙述，而是以个人‘记忆’为方式摆脱旧历史小说的因果法则，通过由命运、偶然、误解等因素引发的事件，对既有历史记录的客观性和绝对性提出了质疑。这种先锋派小说否认历史的客观真实性，以小事件为主题，扩大历史的叙述范围，因此带有新历史小说的特征。

小说<雨季的感觉>也没有明确的主题，也不是要揭示中日战争时期的历史事实或反映当时的现实。作者认为人的理性是脆弱的，甚至受雨季等自然环境的影响，不可相信的。另外作者采用游戏性的叙述方式，打乱事件的顺序，使故事发生逆转。先锋派这种否认历史客观真实性的特征使其与新历史小说相仿。它不以大事件为主题，却超越了旧历史小说狭窄的叙事范围。

格非相信在能以理性和概念掌握的生活范围之外，还有一个领域存在。他认为客观世界的各种现象不是靠知性概念就能完全掌握的，当认识到这一点时，就能以开放的心态面对客观世界，对客观世界形成更为深刻的认识。他还认为存在于‘记忆’中的那个领域虽然不确定的有时甚至是模糊的，却不属于“非现实”的领域，它存在于明确的现实中，并且影响人类的生活。

他认为，中国当时之所以出现精神危机，是由于把社会主义思想作为认识世界的唯一标准而造成的。作出这种判断之后即提出了转换思想意识的主张。这些也是他们借鉴对近代理性提出质疑的西方现代主义和后现代主义思潮的一种尝试。

주제어 : 格非, 记忆的时间, 历史的解体, 理性的限制, 游戏性, 先锋, 新历史